

우리나라 團體協商에 있어서 會計情報의 役割에 관한 研究*

柳 寬 熙**

〈目 次〉

I. 序 論	IV. 實證分析의 結果
II. 理論的 背景 및 關聯研究	V. 結論 및 研究의 限界
III. 研究의 設計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및 研究의 目的

회계의 목적은 정보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런 회계정보가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보이용자 집단의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하며 동시에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¹⁾ 이것은 특정 회계정보가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집단에 따라 유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결정하기 이전에 정보이용자 집단의 의사결정 유형과 정보요구를 먼저 파악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Foster에 의하면²⁾ 일반적으로 정보이용자들은 주주, 투자자, 경영자, 종업원, 채권자, 소비자 및 정부감독기관 등으로 다양하며, 따라서 그들의 의사결정 유형도 다양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업이 외부에 공시하는 회계정보는 대부분이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투자자 집단의 의사결정에 적합한 정보였을 뿐 다른 정보이용자 집단(특히, 앞으로

* 이 논문은 199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

1) 김성기(1991), 「현대중급회계」, 서울:다산출판사, pp. 3-17.

2) Forster 著, 정혜영외 3인 譯(1993), 「재무제표 분석」, 서울:무역경영사, pp. 2-9.

논의하고자하는 종업원집단)에 대해서는 회계정보의 제공이 소홀했음이 사실이다. 이것은 회계정보가 자본시장 내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헌을 했을지 모르지만 사회전체적 자원배분이나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했는지는 의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다.³⁾

종업원들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집단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투자자들에 비해 노동력을 분산하여 제공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주주보다 더 큰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⁴⁾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못지않게 종업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6. 29선언을 기점으로 노사분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⁵⁾ 노사분규의 원인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분규형태는 작업거부와 농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들의 원만한 해결을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이 현실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같이 노사분규의 원인이 주로 임금인상에 있고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생산성 및 지불능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금협상 과정에서 회계정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고 회계정보가 임금인상 결정에 유용한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부에 공시되는 회계정보가 임금인상에 유용한지 즉, 기업의 지불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재무지표들이 임금인상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기업의 임금인상 요인을 생계비, 비교임금, 물가상승율, 경제환경 등의 기업외적인 요인과 생산성이나 수익성, 지불능력, 안전성과 같은 기업내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볼 때 기업의 내적요인에 관한 정보는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를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3) D. J. Cooper and M. J. Sherer(1984), "The Value of Corporate Accounting Report: Argument for a Political Economy of Accounting",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October, pp. 207-232.

4) D. J. Cooper, and S. Essex(1977), "Accounting Information and Employee Decision Making",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pp. 201.

5) 1987년에 3,749건의 파업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1966-1986의 파업누계인 2,562 건을 훨씬 상회하였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은 1988년에 1,771건으로 1986년의 181건에 비해 무려 9배 이상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물가와 생계비와 같은 기업 외적인 요인보다는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는 내적 요인이 임금인상율과 어떠한 유의적인 관계에 있는가를 검증해 보고, 더 나아가서는 단체교섭시 노사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지불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도출해 보고자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실증적인 검증은 회계정보가 임금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과 동시에 단체교섭에 있어서 회계정보의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노사간의 임금교섭에 있어 노조와 중업원의 정보욕구에 부응하는 회계정보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회계정보를 이용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임금교섭 방법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2. 論文의 構成

본 논문은 크게 다섯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문제의 제기, 연구의 목적 및 유용성에 관해 기술했으며 제2장에서는 이론적인 고찰부분으로서 제1절에서 단체교섭에서 회계정보를 이용하게된 배경을 사회적 배경과 법률적 배경을 중심으로 기술했으며, 제2절에서는 본 논문의 목적과 관련된 기존의 논문들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연구설계 부분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위한 모형의 설정 및 각 변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표본의 선정과 자료의 수집, 그리고 연구의 방법 등을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자료의 분석결과를 두개의 가정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적인 결론 및 본 연구의 한계점 등을 기술하고 있다.

II. 理論的 背景 및 關聯研究

1. 團體交涉에서 會計情報를 使用하게된 背景

과학적 교섭 및 노사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교섭이 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의 공유가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노조에 대한 추가적 정보의 제공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이들 정보가 대외비의 성격을 가질 경우 공개를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나 사회적이나 법률적인 여러 배경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은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왔다.

우선 사회적 배경으로 첫째, 회계정보 이용자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즉,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함께 기업을 주주의 사유물로서가 아닌 사회적 제도로 인식하게 되면서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과거의 주주와 채권자에서 기타 종업원 및 소비자 등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둘째, 산업민주주의의 대두이다. 이러한 산업민주주의의 발전은 곧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자치통치(self-government),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자기규율(self-discipline)을 산업사회에도 적용하여 경영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종업원 또는 노동조합의 기업정보의 공유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셋째, 노동조합의 세력강화를 들 수 있다. 노사간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측의 힘이 노동조합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서 있을 때에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정보가 노동조합에게 제공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세력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의 노사간의 역학관계가 깨지면서 산업평화의 달성 또는 노동조합 활동의 전술적 필요에 의해 단체교섭에 있어서의 회계정보 이용문제가 대두되었다.⁶⁾

다음으로 법률적 배경으로는 미국의 경우 노동조합이 기업의 회계정보를 요구한 것은 남북전쟁때로 거슬러 올라 가지만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1935년 “와그너법(Wagner Act)”이 제정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⁷⁾ 영국에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업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으로부터 회계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정보공시조항을 담은 “회사법(Company Act)”, 정보의 공개의무를 담은 1975년의 “고용보호법(The Employment Protection Act)”, “산업법” 등이 있다. 이외에 프랑스에서 1982년 11월에 제정된 “오루(Auroux)법” 등이 있었으며 스웨덴에서도 1970년대 중반에 경영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관련법의 제정이 있었다.

6) 山地秀俊(1987), “勞使交渉と會計情報公開”, 「神戸大學經濟經營研究年報」, 第37號, pp. 348.

7) 山地秀俊, 前掲書, pp. 343.

2. 關聯研究의 檢討

1) 박준완의 연구⁸⁾

박준완은 노사분규가 심한 기업과 심하지 않은 기업이 어떤 재무비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어떤 재무정보가 노사협상시에 반영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재무적 특성요인(노동생산성, 생산성과의 분배,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사분규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그는 먼저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노사분규가 발생된 기업의 재무비율중 공통적 성격을 가진 재무적 요인을 식별하고, 노사분규의 정도(분규지속일과 종업원의 분규참여 비율로 측정함)를 어떤 재무적요인이 설명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대상자료 전체, 분규원인별(임금인상과 임금체불로 한정함) 및 업종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요인분석 결과로 노사분규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 요인1은 생산성 요인으로, 요인2는 지불능력 요인으로, 요인3은 생산성과의 분배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초로 종속변수를 분규의 정도 즉, 분규기간과 분규참여율로하고 독립변수를 생산성, 지불능력 그리고 생산성과의 분배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가지 독립변수 중 기업의 지급능력만이 분규기간 및 분규참여율을 유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생산성 및 생산성과의 분배는 노사분규를 설명할 수 없었다.

2) 박종성의 연구⁹⁾

박종성은 기업의 외부공시 회계정보가 임금인상에 반영되는지를 알아 보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1984-1990년까지 상장된 제조기업중 1982년부터 1990년까지의 재무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업으로 표본을 설정하여 첫째, 종업원 1인당 경상이익 증가율,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종업원 1인당 순운전자본 증가율을 독립변수로하고 종업원 1인당 임금인상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987년

8) 박준완(1992), "제조기업의 노사분규와 재무적 특성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제 11호, 11, pp. 219-240.

9) 박종성(1991), 「회계정보가 임금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2.

6. 29이후의 변동을 이유로 대상기간을 88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각각 임금협상 행태를 분석하였다. 둘째로 그는 추가적인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 각각을 기준으로 3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중간비율 집단을 제외하고 첫번째 집단과 세번째 집단간에 임금인상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회귀분석결과 1988년 이전이나 이후기간 그리고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한 경우 모두 세 독립변수가 임금인상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집단간 임금인상율 차이분석의 결과, 1988년 이후의 기간에 종업원1인당 순운전자본 증가율이 임금인상율과 유의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관회의 연구¹⁰⁾

유관회는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 공시된 회계정보가 임금과 어떠한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영국에서 1977년에 Foley & Maunders가 검증한 회귀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기업에 적용하여 분석했으며, 또한 제조업에 속해있는 기업의 경영자와 노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행하여 임금인상 결정시 각각의 대표들이 주로 어떠한 회계정보를 고려하는가를 조사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그는 1988-1990년도 사이에 연도별로 노사협상에 의한 타결 임금인상률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는 기업을 '88년도에는 113개, '89년도에는 245개, 1990년도에는 63개씩을 각각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금인상타결은 해당 기업의 임금지불능력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조사 결과도 노조는 지불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90%).

10) 유관회(1992), 「회계정보를 통한 기업의 임금지불능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자료 92-14, 11.

4) Horwitz and Shabahang의 연구¹¹⁾

Horwitz와 Shabahang도 임금인상과 당기업의 재무변수간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들이 선택한 재무변수로는 생산성 지표로서 ①매출액, ②순자산회전율, ③노동자 1인당 자본증가율이었고, 지불능력 지표로서는 유동성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④유동비율, ⑤주당배당액, ⑥투자수익률(ROI), ⑦주당순이익(EPS)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매출액순이익률과 매출액만이 임금협상에서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로 나타났다.

5) Liberty and Zimmerman의 연구¹²⁾

Liberty와 Zimmerman은 경영자들이 노사협상 전·후에 발표한 이익을 자료로 단체교섭 기간 중에 보고이익을 줄이는 회계방법을 선택한다는 가정을 검증하였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과 정치가, 유권자 등이 경영자들의 기대되는 조작을 완전히 수정하자면 비용이 많이들기 때문에 경영자의 조작을 완전히 수정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런 정보비용의 존재가 경영자들로 하여금 이익을 조작하도록 하는 유인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들은 이 연구로 경영자들이 이익을 조작하는가의 여부 뿐만 아니라 경영자들이 회계이익과 이익관련정보들을 조작하는 시점도 알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이를 위해 그들은 경영자들이 단체교섭 기간에 보고이익을 줄이는 회계방법을 선택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1969-1981년 사이에 임금협상을 타결한 기업 85개와 Compustat 테이프에 수록된 기업 중에서 85개를 임의로 추출해 대응표본을 만들어 분기별 이익과 연차이익을 이용하여 각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경영자들이 임금협상기간 중에 이익을 조작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협상기간 전·후에 실제이익을 예측이익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분기별 이익을 사용한 경우와 연차이익을 사용한 경우 모두 경영자들이 단체교섭 기간 중에 이익을 줄이는 회계방법을 선택한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회계

11) B. Horwitz, and R. Shanbahang(1971), "Published Corporate Accounting Data and General Wage Increases of the Firm," *The Accounting Review*. Vol 46, pp. 243-252.

12) S. E. Liberty, and J. L. Zimmerman(1986), "Labor Union Contract Negotiations and Accounting Choices,"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pp. 692-712.

방법의 차이(즉 회계정보)가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Nabil Elias의 연구¹³⁾

Elias는 노조측 협상자들에 대한 재무정보의 공시가 노동쟁의의 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정보의 균형은 현장에서는 정의하거나 통제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실험실연구를 하였는데 이익과 손실이라는 정보의 공시와 불공시가 각각 노사협상의 결과(타협 또는 쟁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 협상전이나 협상후에도 타협과 쟁의에 대해 정보의 균형과 불균형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손실정보에 대해서만 그 기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Ⅲ. 研究의 設計

1. 假說의 設定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7년 이후 노사분규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적지 않고 노사분규 대부분의 쟁점이 임금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동안의 노사분규시 임금협상에서 과연 기업의 회계정보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용되었으며, 만일 이용되었다면 어떠한 회계정보(지불능력지표)가 임금인상에 좀 더 유의적인 설명력을 갖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회계정보를 통한 합리적인 임금협상의 토대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종업원의 생계비로서의 측면과 기업의 중요한 비용 중의 하나라는 측면에서, 종업원의 생계비를 임금의 하한선으로 본다면 기업의 지불능력은 임금의 상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13) N. Elias(1990), "The Effects of Financial Information Symmetry on Conflict Resolution : An Experiment in the Context of Labor Negotiations", *The Accounting Review*, Vol. 65, July, pp. 606-623.

지불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의 회계정보들은 임금협상에 반영되리라 추측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불능력의 지표로 생산성 지표, 수익성 지표, 재무구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생산성 지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리라 추측된다. 이는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기업이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임금을 상승시키게 되면 인건비의 부담이 가중되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장기적으로 임금인상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우리나라의 임금협상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재무회계정보들이 반영되고 있다.

가설 2 : 우리나라의 임금협상에서는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재무회계 정보 중 생산성 지표 정보가 가장 많이 반영된다.

가설 1은 임금협상에서의 회계정보의 이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설정되었으며 가설 2는 회계정보가 임금인상에 반영될 경우 과연 어떤 정보가 좀 더 큰 설명력을 갖는가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설정되었다.

2. 變數의 定義 및 模型의 設定

1) 변수의 정의

임금인상을 종속변수로 볼 때 이를 결정하는 독립변수로서의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 지표, 수익성 지표, 재무구조 지표 등 3가지 지표를 중심으로한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지불능력을 예측하는데 있어 순이익과 같은 절대값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비율(ratio)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간의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영향(effect)을 제거시켜 주며, 추이분석을 통한 본래의 예측지표로서의 비율을 이용하는 것이 절대값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종속변수로서 타결임금인상율과 독립변수로서 생산성 지표, 수익성 지표, 재무구조 지표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변수를 변화율(증가율 또는 감소율)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1) 타결임금인상율

일반적으로 임금인상율은 두가지로 발표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실질임금인상율”이며 또 다른 하나는 “타결임금인상율”이다. 전자는 여러 항목의 복잡한 임금구조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비용으로서 부정기적 수당, 이익분배적 성격의 임금, 정기승급 등에 의한 임금인상과 같은 모든 면이 고려된 임금인상율 즉, 기업의 노무비 측면에서 계산된 인상율이고, 타결임금인상율이란 노사협회의 의해 타결된 임금인상율로서 보통 통상 임금(고정적 급여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사실상 통계상으로도 이 두 인상율 사이에는 매년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⁴⁾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임금협상에 미치는 회계정보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인상율 변수로는 타결임금인상율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생산성 지표¹⁵⁾

이 지표는 기업활동의 성과 및 효율을 측정하고 개별 생산요소와 기여도 및 성과배분의 합리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지표이다. 그러므로 생산성에 관한 지표는 경영합리화의 척도인 동시에 생산성 향상으로 얻은 성과에 대한 분배기준이 된다. 그러나 실제 생산성 지표를 계산함에 있어 노동과 기타요소의 기여도를 엄밀히 구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근래에는 경영성과를 부가가치 생산성이란 개념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과 종업원 1인당 노동장비율 증가율을 선정하기로 한다.

$$\textcircled{1} \text{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 \left(\frac{\text{당기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text{전기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 1 \right) \times 100$$

여기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인건비, 금융비용, 임차료, 조세공과, 감가상각비의 합을 종업원 수로 나눈 것이다.

14)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조사 보고서”를 보면 92년의 경우 실질임금인상율은 14.1% 인데 비해 타결임금인상율은 6.5% 이었다.

15) 여기서의 지표의 정의는(한국은행(1993), “기업경영분석”)의 정의를 따른 것임.

$$\textcircled{2} \text{ 종업원 1인당 노동장비율 증가율} = \left(\frac{\text{당기 종업원 1인당 노동장비율}}{\text{전기 종업원 1인당 노동장비율}} - 1 \right) \times 100$$

여기서 노동장비율이란 유형고정자산에서 건설가계정을 차감한 값을 종업원 수로 나눈 값으로 생산과정에서 종업원 한사람이 어느 정도의 노동장비를 이용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3) 수익성 지표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비율로는 자산이용의 효율성, 이익창출 능력 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수익성 관련 비율들이 주로 사용된다. 수익성의 향상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지불능력을 향상시키고 따라서 종업원에게 배분될 “몫”도 향상시킨다. 수익성 지표로 사용되는 비율은 다양하나 여기서는 매출액 순이익률의 증가율, 총자산 경상이익률의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을 사용하였다.

$$\textcircled{1} \text{ 매출액 순이익률 증가율} = \left(\frac{\text{당기 매출액 순이익률}}{\text{전기 매출액 순이익률}} - 1 \right) \times 100$$

$$\text{매출액 순이익률} = \left(\frac{\text{순 이익}}{\text{매출액}} \right) \times 100$$

$$\textcircled{2} \text{ 총자산 경상이익률 증가율} = \left(\frac{\text{당기 총자산 경상이익률}}{\text{전기 총자산 경상이익률}} - 1 \right) \times 100$$

총자산 경상이익률은 경상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총자본 경상이익률 이라고도 하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총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익성 분석의 대표적인 비율이다. 한편 이 지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은

$$\text{총자산 경상이익률} = \text{매출액 경상이익률} \times \text{총자산 회전율}$$

$$\text{총자산 경상이익률} = \text{자기자본 경상이익률} \times \text{자기자본비율이다.}$$

여기서 두 식을 살펴보면 우선 첫번째 식에서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높으나 총자산 회전율이 낮은 경우 판매 “마진”은 높으나 기업의 판매활동이 부진했음을 나타내고, 둘째, 자기자본 경상이익률이 높다 하더라도 타인자본 의존도가 높으면 그에 대한 금융비용의 증가로 인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은 낮아짐을 나타낸다.

$$\textcircled{3} \text{ 매출액 증가율} = \left(\frac{\text{당기 매출액}}{\text{전기 매출액}} - 1 \right) \times 100$$

이것은 기업의 외형적 성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매출액의 증가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결국 이익의 증가와 직결되므로 높은 증가율은 높은 지불능력을 의미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4) 재무구조 지표

재무구조 지표는 기업의 자본구조를 나타내는 지표들로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기업의 지불능력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기업의 이익수준에 영향을 주어 결국은 지불능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 지표 역시 기업의 지불능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자기자본비율증가율과 유동비율증가율을 이 지표로 선정하였다.

$$\textcircled{1} \text{ 자기자본비율 증가율} = \left(\frac{\text{당기 자기자본비율}}{\text{전기 자기자본비율}} - 1 \right) \times 100$$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 중 자기자본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높게되면 금융비용이 감소하여 종업원에게 배당할 수 있는 부가가치의 크기가 커져 기업의 지불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기업의 안정성이 향상된다. 이 비율의 표준비율은 대략 50%이다.

$$\textcircled{2} \text{ 유동비율 증가율} = \left(\frac{\text{당기 유동비율}}{\text{전기 유동비율}} - 1 \right) \times 100$$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나타내며 그

만큼 이 비율이 높으면 기업의 지불능력과 유동성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비율은 일반적으로 20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여겨진다.

2) 모형의 설정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임금과 회계정보들간의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가를 검증하고 더 나아가 앞에서 정의한 생산성 지표, 수익성 지표, 재무구조 지표 중 어떤 변수가 임금인상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는가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Foley & Maunders가 사용한 회귀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시켜 보았다. Foley & Maunders 모델을 본 연구에 채택한 것은 Horwitz & Shabahang(1971)의 연구에서 임금인상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매출액 규모와 매출액 순이익률을 모델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4년도에 발표된 Peel & Pope의 연구에서도 Foley & Maunders의 모델을 사용하는 등 임금인상관련 선행연구에서 자주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가설 1 즉, “우리나라의 임금협상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재무회계 정보들이 반영되고 있다.”를 검증하기 위한 모델은 다음과 같다.

$$W_0 = a_0 + a_1 X_1 + a_2 X_2 + a_3 X_3 + a_4 X_4 + a_5 X_5 + a_6 X_6 + a_7 X_7$$

W_0 : 당해년도 타결 임금인상율

X_1 : 직전년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X_2 : 직전년도 종업원 1인당 노동장비율 증가율

X_3 : 직전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증가율

X_4 : 직전년도 총자산 경상이익율 증가율

X_5 : 직전년도 매출액 증가율

X_6 : 직전년도 유동비율 증가율

X_7 : 직전년도 자기자본비율 증가율

이 모델에서 종속변수(W_0)로 타결임금인상율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타결임금인상율만이 노사임금협상에 의한 순수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며 X_1 과 X_2 는 생산성 지표를,

X_3 - X_5 는 수익성 지표를, X_6 과 X_7 은 재무구조 지표를 나타낸다. 이 가설은 위의 회귀방정식의 유의도를 살펴봄으로써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설 2 즉, “우리나라의 임금협상에서는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재무회계정보 중 생산성 지표가 가장 많이 반영된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의 회귀방정식의 독립변수를 X_1 과 X_2 , X_3 - X_5 , X_6 와 X_7 으로 세 부류로 구분하여 각각을 종속변수와 연계시켜 다시 분석을 해볼 것이다. 즉 가설 2를 위한 회귀식을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W_0 = a_0 + a_1 X_1 + a_2 X_2$$

$$W_0 = b_0 + b_1 X_3 + b_2 X_4 + b_3 X_5$$

$$W_0 = c_0 + c_1 X_6 + c_2 X_7$$

이 회귀식에 의한 가설 2의 검증은 각 회귀식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들을 비교해봄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타겟임금인상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각종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추출한 재무비율의 증가율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t 기의 임금인상율에 대응되는 독립변수는 $t-2$ 기와 $t-1$ 기 사이의 증가율(또는 감소율)을 사용하였다. 이 점이 본 연구가 유관희(1992)의 연구를 연구설계면에서 보다 강화, 보완하는 측면이다. 그 이유는 유관희(1992)의 연구에서는 t 기의 임금인상에 협상년도의 직전년도($t-1$) 회계정보를 대응시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나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의 변화란 $t-1$ 기만의 한 회계년도의 회계정보로 판단하기보다는 $t-2$ 기와 $t-1$ 기 사이에 나타난 관련정보의 변화량으로 측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독립변수는 변화율의 개념이고 임금인상율에 대해 협의가 있는 해(t 기)의 바로 전 2기($t-2$ 기와 $t-1$ 기)사이의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이들을 계산하였다.

3. 標本의 選定 및 資料의 蒐集

1) 標本의 選定

본 연구는 1989년 부터 1993년까지의 5개년도 사이에 한국노총의 연도별 사업보고서에 보고된 노사협약에 의한 임금인상이 있었던 기업인 동시에 12월 결산법인이며 1987년 부터 1992년 까지의 외부공시 재무정보가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t기의 임금인상율에 t-2기와 t-1기 사이의 재무변수 변화율을 대응시켜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임금협상이 실행된 년도의 2년전 재무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의 대상기업 중에는 외부감사 대상법인 중에서 제조업에 속한 기업중 상장기업 뿐만 아니라 등록법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표본의 수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여 회계정보와 임금인상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또한 대상을 12월 결산법인으로 제한한 것은 대부분의 임금인상에 대한 협상이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그 인상율의 적용시점이 3,4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⁶⁾

이러한 기준으로 추출한 기업의 수는 각 년도별로 1989년에 120개, 1990년도에 133개, 1991년에 136개, 1992년에 131개, 1993년에 176개가 되었다.

2) 자료의 수집

위에서 설명했듯이 기업별로 임금조정기간과 인상시기는 상이하나 대부분이 상반기에 임금협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노사협약에 의한 기업별 타결임금인상율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해당기업의 공시된 재무제표 정보를 이용하여 지불능력 지표 즉, 독립변수들을 추출하였다.

연구대상기간은 '89년부터 '93년까지 5개년으로 잡았으며 연구대상 기업은 표본의 수를 가능한 한 늘리기 위해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기업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업종면에 있어서는 제조업으로 한정하였다. 여기서 기업별 임금인상율은 한국노총의 각년

16) 경총, "93 임금조정 실태조사", 1993, pp. 40-49를 보면 임금협상은 주로 4월 (46.1%)과 5월 (26.4%)에 시작하여 6월(47.5%)과 7월(23.3%)에 타결되고 있으며 그 인상율의 적용시점은 4월(40.0%)과 3월(36.0%)이 가장 많았다.

도 사업보고서에서, 독립변수를 위한 기초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에서 매년 발행하는 “기업재무총람”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우선 노사협상에 의한 임금인상 실적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대상 기업을 선정한 후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87년부터 '92년까지의 당 기업의 재무제표 정보를 이용하여 각 독립변수를 추출하였다. 이때 독립변수는 기업재무총람에서 각각 계산하였다.

IV. 實證分析의 結果

1. 賃金協商시 會計情報 이용여부에 관한 分析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임금협상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재무회계정보들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가설 1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다음의 검증 결과는 전 독립변수를 대상으로 타결임금 인상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1) 5년 전체의 결과

5개년 전체의 자료 총 696개 기업을 가지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유의도임)

$$\begin{aligned}
 W_0 = & 14.67545 + 0.00107 X_1 + 0.00105 X_2 - 1.78099 X_3 + 0.00145 X_4 \\
 & (0.0000) \quad (0.6535) \quad (0.2403) \quad (0.9638) \quad (0.2011) \\
 & - 6.85271 X_5 + 4.43674 X_6 + 0.01583 X_7 \\
 & (0.7514) \quad (0.9053) \quad (0.0517)
 \end{aligned}$$

$$R^2 = 0.01111$$

$$F = 1.10389$$

$$\text{sig } F = 0.3587$$

위에서 5개년 전체자료의 분석결과 도출된 회귀식의 설명력은 겨우 1%정도 밖에 안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ig F=0.3587 > $\alpha=0.05$). 그

와 동시에 각 변수들의 유의도를 살펴보아도 회귀식내에서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는 변수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2) '89년도의 결과

120개의 기업자료를 가지고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귀식이 산출되었다. (괄호안은 유의도임)

$$\begin{aligned}
 W_0 = & 21.73913 - 0.00395 X_1 + 0.06998 X_2 + 0.00315 X_3 - 0.00267 X_4 \\
 & (0.0000) \quad (0.4031) \quad (0.0765) \quad (0.3413) \quad (0.3544) \\
 & + 0.0827 X_5 - 0.01565 X_6 - 0.01123 X_7 \\
 & (0.0540) \quad (0.1301) \quad (0.6491)
 \end{aligned}$$

$$R^2 = 0.07248$$

$$F = 1.25039$$

$$\text{sig } F = 0.2816$$

이 결과를 볼때, 위의 회귀식이 설명하는 임금의 변동은 7.2% ($R^2=0.07248$)로 그 설명력이 아주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식에 포함된 각 변수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도 없었다.

3) '90년도의 결과

133개의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90년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회귀식과 통계량들이 산출되었다.

$$\begin{aligned}
 W_0 = & 16.27777 - 0.05279 X_1 + 0.06411 X_2 - 0.00953 X_3 + 0.01479 X_4 \\
 & (0.0000) \quad (0.1739) \quad (0.0000) \quad (0.1550) \quad (0.1210) \\
 & + 0.11975 X_5 + 0.01292 X_6 + 0.05524 X_7 \\
 & (0.0248) \quad (0.5755) \quad (0.0599)
 \end{aligned}$$

$$R^2 = 0.29746$$

$$F = 7.56076$$

$$\text{sig } F = 0.0000$$

위의 회귀식을 보면 회귀식에 포함된 변수중 X_2 (노동장비율증가율)와 X_5 (매출액 증가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X_7 도 어느정도의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귀식의 설명력도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회귀식내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변수가 있으므로 STEPWISE 기법에 의해 다시 회귀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X_2 가 21.97%의 설명력을 가지며, X_5 가 추가되어 그 설명력이 24.75%로 향상되었다. 이를 볼때 90년도의 회귀식에서는 X_2 의 설명력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회귀식의 총 설명력 29.75%의 대부분을 X_2 와 X_5 가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91년도의 결과

91년도에는 136개의 기업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결과로 산출된 회귀식과 각종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W_0 = & 17.81517 - 0.02883 X_1 - 0.00600 X_2 + 0.00334 X_3 + 0.00435 X_4 \\
 & (0.0000) \quad (0.4176) \quad (0.4389) \quad (0.6842) \quad (0.5824) \\
 & + 0.50701 X_5 - 0.00811 X_6 + 0.00993 X_7 \\
 & (0.4039) \quad (0.5348) \quad (0.7714)
 \end{aligned}$$

$$R^2 = 0.0207$$

$$F = 0.38661$$

$$\text{sig } F = 0.9088$$

91년도 역시 '89년도와 같이 도출된 회귀식의 임금인상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미약하며(2.07%),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다($\text{sig } F=0.9088 > \alpha=0.05$). 또한 각 변수들의 유의도를 살펴보면 임금인상을 유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변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90년도의 비교적 높은 설명력과는 대조적으로 임금협상에서 회계정보가 이용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5) '92년도의 결과

131개의 기업자료를 통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귀식과 그에

관련한 통계량을 얻었다.

$$\begin{aligned}
 W_0 = & 8.99797 + 0.01179 X_1 - 0.00204 X_2 + 5.57909 X_3 - 0.00489 X_4 \\
 & (0.0000) \quad (0.0051) \quad (0.7680) \quad (0.0077) \quad (0.0007) \\
 & - 7.05891 X_5 - 0.01555 X_6 + 0.01455 X_7 \\
 & (0.3542) \quad (0.2755) \quad (0.1548)
 \end{aligned}$$

$$R^2 = 0.16157$$

$$F = 3.38611$$

$$\text{sig } F = 0.0024$$

위의 회귀식에서 각 변수의 유의도를 보면 X_1 (부가가치증가율), X_3 (순이익률증가율), 그리고 X_4 (경상이익률증가율)가 회귀식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다시 STEPWISE방식에 의해 회귀분석해 본 결과 이 세 변수만 가지고도 13.9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회귀식의 임금인상에 대한 설명력은 16.16%로 나타나고 있어 본 회귀식의 설명력은 위의 X_1 , X_3 , X_4 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text{sig } F=0.0024 < \alpha = 0.05$), 회귀식의 설명력이 91년에 비해 상당히 높아지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볼 때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6) '93년도의 결과

176개의 기업자료를 가지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귀식과 그와 관련된 통계량을 얻었다.

$$\begin{aligned}
 W_0 = & 6.79683 + 0.00119 X_1 - 0.00966 X_2 - 1.29088 X_3 - 0.00413 X_4 \\
 & (0.0000) \quad (0.1345) \quad (0.1716) \quad (0.8507) \quad (0.7954) \\
 & - 0.00413 X_5 - 9.13935 X_6 - 0.00262 X_7 \\
 & (0.4165) \quad (0.8052) \quad (0.3921)
 \end{aligned}$$

$$R^2 = 0.02208$$

$$F = 0.54196$$

$$\text{sig } F = 0.8017$$

93년 결과 역시 도출된 회귀식의 설명력은 2.21%로 아주 낮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다. 또한 회귀식 내의 모든 독립변수도 그 유의도를 볼 때 결코 유의적이지 못하다. 이런 결과는 89년, 91년 자료와 유사하며 90년과 92년 결과에 비해서 설명력이 떨어지는 결과이다.

7) 5년간 분석결과의 요약

이상에서 각 년도별 분석결과들 중에서 중요한 통계량을 요약하면 다음에 제시한 <표 4-1>과 같다. 이 표를 보면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도출한 회귀식이 대부분 임금인상에 대해 설명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90년의 경우가 최고의 설명력을 갖고 있으나 30%이하고, 92년도에 16.16%, 89년도에 7.25%, 93년도에 2.21%, 그리고 91년도에 2.07%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5개년 전체의 설명력이 1.11%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R^2 값의 5년 동안의 추이를 보더라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90년과 92년의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특수한 경우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임금협상에서의 회계정보의 이용정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위의 결과는 임금협상에서 아직까지도 회계정보의 이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1> 분석 결과의 요약

통계량	년도					
	5년 전체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회귀식의 R^2 값	0.01111	0.07248	0.29746	0.0207	0.16157	0.02208
회귀식의 F값	1.10389	1.25039	7.56076	0.38661	3.38611	0.54196
회귀식의 유의도	0.3587	0.2816	0.0000	0.9088	0.0024	0.8017

분석결과가 유의하지 못한 이유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Tolerance 값을 확인해 보았다. 이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 <표 4-2>이다.

〈표 4-2〉 Tolerance의 값

변수\년도	5년 전체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X ₁	0.88	0.81	0.78	0.63	0.95	0.47
X ₂	0.90	0.12	0.75	0.02	0.83	0.76
X ₃	0.74	0.36	0.80	0.57	0.24	0.35
X ₄	0.67	0.37	0.81	0.60	0.34	0.26
X ₅	0.89	0.69	0.64	0.02	0.96	0.33
X ₆	0.99	0.11	0.88	0.95	0.84	0.99
X ₇	0.98	0.93	0.90	0.95	0.77	0.51

Tolerance의 최대값은 1이며,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경계점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0.5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볼 때, 89년의 변수들 중에는 X₂, X₃, X₄, X₆ 등이 Tolerance의 값이 낮아 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90년의 경우는 공선성의 문제가 없으며, 91년은 X₂와 X₅가, 92년에는 X₃와 X₄가, 93년에는 X₃, X₄, X₅가 공선성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5개년 전체로 보아서는 공선성 문제가 있는 변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90년을 제외하고 연도마다 공선성이 있는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R²의 값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賃金引上에 대한 會計情報의 說明力 차이에 대한 分析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정보들의 세가지 부류 즉, 생산성변수, 수익성변수, 재무구조변수들이 임금인상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각각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아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정보가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회계정보를 위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또한 STEPWISE 기법에 의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산출된 통계량들을 나타내면 다음의 〈표 4-2〉와 같다.

〈표 4-3〉 회계정보별 R² 값의 비교

통계량		년 도					
		5년 전체	1989	1990	1991	1992	1993
생산성 변수	회귀식의 R ² 값	0.00187	0.00056	0.22212	0.00071	0.0619	0.01441
	회귀식의 유의도	0.5230	0.9676	0.0000	0.9536	0.0618	0.2848
수익성 변수	회귀식의 R ² 값	0.00319	0.03798	0.15016	0.01264	0.08425	0.00337
	회귀식의 유의도	0.5293	0.2113	0.0001	0.6401	0.0106	0.9006
재무구조 변수	회귀식의 R ² 값	0.00598	0.00218	0.01567	0.00294	0.01394	0.00268
	회귀식의 유의도	0.1250	0.8800	0.3582	0.8222	0.4072	0.7928
전체 회귀식의 R ² 값		0.01111	0.07248	0.29746	0.0207	0.16157	0.02208

위의 〈표 4-3〉을 보면 89년의 경우는 수익성 변수의 설명력이 가장 높고, 90년의 경우는 생산성 변수, 92년의 경우는 수익성 변수, 93년의 경우는 생산성 변수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의 1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회귀식이 유의한 90년과 92년의 자료를 대상으로 STEPWISE 기법에 의해 다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90년의 경우는 회귀식의 총 설명력 29.746% 중에서 X₂(종업원 1인당 노동장비율)가 21.97%의 설명력을 갖고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변수는 X₅(매출액증가율)로서 이 두 변수의 설명력은 24.75% 이었다. 이는 회귀식의 총 설명력인 29.75%의 거의 대부분으로서 그 만큼 이 두 변수가 임금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2년의 경우에는 X₁, X₄, 그리고 X₃가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의 총 설명력 16.157% 중에서 X₁(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이 최초로 회귀식에 투입되어 6.17%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X₄(총자산 경상이익율)가 추가로 투입되어 8.99%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마지막으로 X₃(매출액 순이익율)가 투입되어 13.9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90년도와 마찬가지로 이 세 변수가 회귀식의 총 설명력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만큼 이 변수들이 임금인상시에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각 년도별 세 부류의 회계정보별로 회귀식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5년 전체의 경우

- (1) 생산성 변수 : $W_0 = 14.701924 - 5.917065 X_1 + 9.667159 X_2$
- (2) 수익성 변수 : $W_0 = 14.80502 + 5.83305 X_3 - 0.00129 X_4 - 2.08364 X_5$
- (3) 재무구조 변수 : $W_0 = 14.69749 + 7.32897 X_6 + 0.016375 X_7$

2) 89년의 경우

- (1) 생산성 변수 : $W_0 = 23.614224 + 1.237155 X_1 + 0.003459 X_2$
- (2) 수익성 변수 : $W_0 = 22.512277 + 0.003476 X_3 - 0.002539 X_4 + 0.069884 X_5$
- (3) 재무구조 변수 : $W_0 = 23.826525 - 0.00171 X_6 - 0.003562 X_7$

3) 90년의 경우

- (1) 생산성 변수 : $W_0 = 17.113254 - 0.023220 X_1 + 0.075589 X_2$
- (2) 수익성 변수 : $W_0 = 16.422615 - 0.009979 X_3 + 0.009541 X_4 + 0.208986 X_5$
- (3) 재무구조 변수 : $W_0 = 19.334163 + 6.660475 X_6 + 0.046157 X_7$

4) 91년의 경우

- (1) 생산성 변수 : $W_0 = 18.011231 - 0.004534 X_1 + 2.909197 X_2$
- (2) 수익성 변수 : $W_0 = 17.927923 + 0.003809 X_3 + 0.004579 X_4 + 0.003218 X_5$
- (3) 재무구조 변수 : $W_0 = 18.011063 - 0.006486 X_6 + 0.012601 X_7$

5) 92년의 경우

- (1) 생산성 변수 : $W_0 = 8.959819 + 0.012214 X_1 + 0.001063 X_2$
- (2) 수익성 변수 : $W_0 = 9.338953 + 5.768929 X_3 - 0.00467 X_4 - 7.50848 X_5$
- (3) 재무구조 변수 : $W_0 = 9.409295 - 0.002805 X_6 + 0.01315 X_7$

6) 93년의 경우

- (1) 생산성 변수 : $W_0 = 6.68701 + 6.489647 X_1 - 0.007345 X_2$
 (2) 수익성 변수 : $W_0 = 6.506044 - 1.53088 X_3 - 1.76092 X_4 + 0.001412 X_5$
 (3) 재무구조 변수 : $W_0 = 6.558587 - 7.21532 X_6 - 0.001414 X_7$

이상의 결과로 볼때 제1절에서 본 바와 같이 회계정보가 임금인상에 유의적으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도출한 회귀식은 90년도와 92년도의 회귀식이 비록 유의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설명력은 낮은 편으로 아직 회계정보가 임금협상에서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 반영의 정도가 시계열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임금협상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재무회계 정보들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가설 1은 기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회귀식이 유의적인 년도인 90년과 92년을 대상으로 STEPWISE 기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2개년도 모두 가장 첫번째로 투입된 회계정보 변수가 90년에 X_2 (종업원 1인당 노동장비율), 92년에 X_1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율)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임금협상에서는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재무회계 정보 중 생산성 지표 정보가 가장 많이 반영된다.”라는 가설 2에 상당히 근접하고는 있으나 5년 전체의 분석결과에서 임금인상을 유의적으로 설명하는 지속적 변수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회귀식의 유의도가 떨어져 임금인상결정에 미치는 회계정보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을 볼 때 그 의미를 찾기가 힘들다. 이런 가설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V. 結論 및 研究의 限界

1. 結論

본 연구는 기업의 외부공시 회계정보가 임금인상에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해 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기업의 회계정보들 중에서 어떠한 종류의 정보가 임금인

상에 보다 더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가를 검증해 봄으로써 기업의 임금인상 결정시 회계 정보를 이용한 보다 합리적인 협상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1989년부터 199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제조업을 대상으로 타결임금인상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율, 종업원 1인당 노동장비율, 총자산 경상이익율, 매출액 순이익율, 매출액 증가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두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임금인상율에 대해 모든 독립변수를 대응시켜 ENTER 방식과 STEPWISE 방식에 의해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으며, 다음으로 독립변수를 생산성 변수, 수익성 변수, 재무구조 변수 등 3가지 부류로 나누어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보았다.

우선 연구 대상기간 전체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도출된 회귀식의 R^2 값이 1.11%로 매우 낮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못했으며, 또한 각 년도별로 도출된 회귀방정식도 90년도와 92년도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식이 도출된 90년과 92년에도 회귀식의 R^2 값이 각각 29.75% 와 16.16%로 나타나 도출된 회귀식이 임금의 변동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웠다. 또한 각 년도별 R^2 값이 시계열상으로 점점 향상되리라고 예상했으나 이 값도 어떤 일정한 추이를 보여주지 못하였고 5년 전체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도 설명력이 매우 낮은 것을 감안할 때 90년과 92년의 결과들이 특수한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만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회계정보가 임금인상협상에서 체계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아직 임금인상이 지불능력을 통한 합리적인 방법보다는 노·사간의 힘에 의한 분배적 쟁취의 대상이 되고 있거나, 기업외적인 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첫째, 노조의 경영자 및 회계정보에 대한 불신 내지는 회계정보의 해석능력 미비로 인한 회계정보 이용의 배제이며, 둘째, 임금인상시 회계정보 보다는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나 상위 단체(예를들어, 노총과 경총)의 합의 인상을 또는 생계비, 동종산업의 평균임금인상율과 같은 기업외적인 요인에 의해 보다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본 연구에서는 정기적, 고정적 임금에 대한 타결임금인상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바, 만약 임금인상을 이익분배 형식의 상여나 부정기적인 수당 등의 간접적인 형태로 인상효과를 대신하였다면, 이러한 경우는 기업의 타결임금인상율이 기

업의 지불능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로 임금인상에 회계정보가 이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변수들 중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인상 협상시 회계정보가 체계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았고, 따라서 각 변수별로도 임금인상에 특별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회귀식이 유의했던 90년과 92년의 결과를 토대로 2개년도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는 생산성 변수가 가장 우선적인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의 임금인상에 관한 노사협상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수들은 기업의 생산성과 관련된 변수들임을 알 수 있다.

2. 研究의 限界 및 앞으로의 研究方向

본 연구는 회계정보 이용자로서의 종업원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이 어떠한 회계정보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는데 그 가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도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기업의 타결임금인상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임금인상을 정기적 임금(또는 통상임금) 이외의 부정기적 수당이나 이익분배적 상여금의 형태로 대체할 경우 임금의 진정한 인상효과가 연구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을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묶여 암묵적으로 임금인상율에 대해 통제를 받아온 기업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임금지급을 조건으로 타결임금인상율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아 임금인상이 많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실질임금인상율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두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둘째, 자료의 한정성을 들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는 노총의 사업보고서가 거의 유일한 원천이었고 그나마 년도별 자료의 보관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료를 폐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을 시험해 볼 다른 원천에서의 유사자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계열 분석도 거의 불가능하였다. 앞으로 이 분야에 관련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좀더 현실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노조와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즉, 설문조사를 통하여 임금협상의 당사자들인 노조와 경영자들이 어떠한 변수들을 임금인상협상에 고려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증자료의 분석결과와 비교, 평가해 본다든지 또는 독립변수를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한다면 좀 더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영국에서 검증되었던 회귀분석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본 것이므로 우리나라 실정에는 적당하지 않은 독립변수들이 회귀식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 더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독립변수의 개발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외에도 정부의 가이드라인, 이익의 주주분배와 관련되는 EPS나 주당배당액,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비용 등과 관련된 변수, 기업외적인 요인으로 생계비 기준이나 동종 타기업의 인상율이나 산업평균 임금인상율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國內文獻

- 김수곤(1987), 「임금과 노사관계」, 한국개발연구원.
- 김영재(1984), “산업민주주의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고찰-영국과 서독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영논총」, 9집.
- 김재원(1991), “한국의 임금타결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관리학회, 「인사관리연구」, 제15집, 12, pp. 107-138.
- 김황주(1993), 「단체교섭론」, 서울: 법문사.
- 김홍길, 김홍선(1992), “임금결정 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6, pp. 21-43.
-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조사 보고서」, 각 년도.
- 박종성(1991), 「회계정보가 임금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준완(1992), “제조기업의 노사분규와 재무적 특성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제11호, 11, pp. 219-240.

- 김성기(1991), 「현대중급회계」, 서울:다산출판사.
- 유관희(1992) 「회계정보를 통한 기업의 임금지불능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자료 92-14.
- 유영호(1993), 「우리나라 임금교섭기준에 관한 이론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우, 남상섭(1994), “한국의 노동조합이 임금배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 pp. 251-275.
- 이천기(1990), “임금관리의 쟁점에 관한 서설적 접근”, 한국인사관리학회, 「인사관리연구」, 제14집, 12, pp. 3-35.
- 이태준(1989), “기업주 이익은폐 어떻게 밝혀내나”, 「노동자」, 창간호, 백산서당.
- 정혜영 외 3인 譯(Forster 著)(1993), 「재무제표 분석」, 서울:무역경영사.
- 최종태(1992), 「현대노사관계론」, 서울:경문사.
- _____ (1986), 「현대인사관리론」, 서울:박영사.
- 한국경영자 총협회(1992), 「92년 임금조정동향과 특징」.
- _____ (1993), 「93 임금조정 실태조사」.
- _____ (1994), 「94 임금실무자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90), 「“89 노동쟁의 사례집」, 2.
- _____, 「사업보고서」, 각 년도.
- 한국생산성본부(1988), 「임금결정활용지표」.
- _____ (1991), 「경영성과 분석과 임금체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년도.

外國文獻

- 山地秀俊(1988), “イギリスにおける勞使交渉と會計情報公開 - 制度 文獻 展開を追って-”, 「神戸大學 經濟經營研究」, 第38號(I, II).
- 山地秀俊(1987), “勞使交渉と會計情報公開”, 「神戸大學經濟經營研究年報」, 第37號.
- 富剛辛雄(1980), 「會計の社會的 役割の増大と會計學研究」, 中央大學企業研究所篇.
- 嶺輝子(1988), “ユミユニテ-ションとしての會計テイスクロシヤ(2)”, 長崎大學經濟學會, 「經營と經濟」, 第68券, 第2號.

- Benston, G. J.(1963), "The Role of the Firm's Accounting System for Motivation", *The Accounting Review*, April, pp. 347-354.
- Burchell(1985), et. al., "Accounting in its Social Context : Towards a History of Value Added in the United Kingdom",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Vol. 10, No. 4.
- Cooper, D. J. and M. J. Sherer(1984), "The Value of Corporate Accounting Report: Argument for a Political Economy of Accounting",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October, pp. 207-232.
- _____, and S. Essex(1977), "Accounting Information and Employee Decision Making",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 Currie, J. and S. McConnell(1991),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Public Sector:The Effect of Legal Structure on Dispute Costs and Wag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 pp. 693-718.
- Dyson, J. R.(1973), "Audits for Employees: The Right to Know", *The Accountant*, 3, pp. 309-311.
- Elias, N.(1990), "The Effects of Financial Information Symmetry on Conflict Resolution : An Experiment in the Context of Labor Negotiations", *The Accounting Review*, Vol. 65, July, pp. 606-623.
- Foley, B. J. and K. T. Maunders(1977), *Accounting Information Disclosure and Collective Bargaining*, London, MacMilan.
- Forsythe, F., J. Kennan, and B. Sopher(1991), "An Experimental Analysis of Strikes in Bargaining Games with One-Sided Private Inform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3, pp. 253-271.
- Herbert, G. H. and Y. Dale(1965), *Labor Economics*, 2nd ed, South Western.
- Hoerr, J.(1991), "What Should Unions Do ?", *Harvard Business Review*, 5-6, pp. 30-32.
- Horwitz, B. and R. Shanbahang(1971), "Published Corporate Accounting Data and General Wage Increases of the Firm", *The Accounting Review*. Vol 46, pp. 243-252.

- Kunio Odaka(1977), *Toward Industrial Democracy: Management and Workers in Modern*,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Liberty, S. E. and J. L. Zimmerman(1986), "Labor Union Contract Negotiations and Accounting Choices",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pp. 692-712.
- Maunder, K. T., and B. J. Foley(1984),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Role of the Accountant in the Collective Bargaining - Some Comments,"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pp. 99-106.
- Purdy, D.(1981), "The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to the Employees; A Study of the Reporting Practices of Some Large Public Companies in the United Kingdom",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Vol. 6, No. 4.
- Watts, R. L., and J. L. Zimmerman(1980), *Positive Accounting Theory*, New Jersey: Prentice - Hall.